

현대 문화를 읽는 코드로 떠오르기 시작한 음식

문화적·정치적 관점에서 음식 조명한 책들

최근 음식문화, 음식과 문명의 관계를 파헤친 책들이 활발히 출간되고 있다. 인류와 음식의 관계를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책들부터, 음식과 권력의 관계를 추적한 책들까지 다양하다. 또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책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음식이 식탁에서 벗어나 서가로 올라간 것은 이제 음식이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코드로 기능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음식은 인류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음식은 굳이 코카콜라나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문화적 코드로 작용한다. 또 가장 단시일 내에 자국문화를 이국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문화침병'이기도 하다.

인류와 음식의 상호관계 밝히는 책들

음식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기능하는 것은 바로 식관습 때문이다. 맛시모 몬타나리의 《유럽의 음식문화》(주경철, 새물결)는 음식문화의 흥미로운 역사를 통해 유럽 문명 전체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음식은 사회·문화·경제·정치·예술 등 인간경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다. 지은이는 우선 음식이라는 소재의 특성과 연구과정에서 추출해낸 개념인 '기근과 풍요의 반복'을 새로운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내세운다. 특히 개인의 선택을 지배하고 좌우하는 현실세계의 권력관계에 주목해 눈길을 끈다. 지은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자양분만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를 소유한다. 수세기에 걸쳐 음식이 획득한 이미지에 따라 어떤 음식은 선호되고 어떤 음식은 추방당했다.

또한 음식은 인간의 본질과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는 훌륭한 예가 되기도 한다. 미국의 인

류학자 시드니 민츠의 《음식의 맛 자유의 맛》(조병준, 지호)은 음식의 사회사를 다룬 흥미로운 에세이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에 권력과 사회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지를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자세히 분석해간다. 이 책에 따르면, 코카콜라가 미국의 국민 음료로 자리잡게 된 것은 전쟁 때문이었다. 2차대전 전까지 콜라의 가장 큰 소비자는 맨스파티 등에서 콜라에 위스키를 몰래 섞어 마시던 고등학생들이었다. 그런데 콜라가 전쟁 중에 군인들에게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엄청난 신분상승을 이룬다. 획일화된 군대문화 속에서 콜라가 문화적 감각을 전달하는 도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 단 음식과 다이어트의 관계를 통해 욕망과 절제라는 인간의 원초적 본질을 파헤치고 있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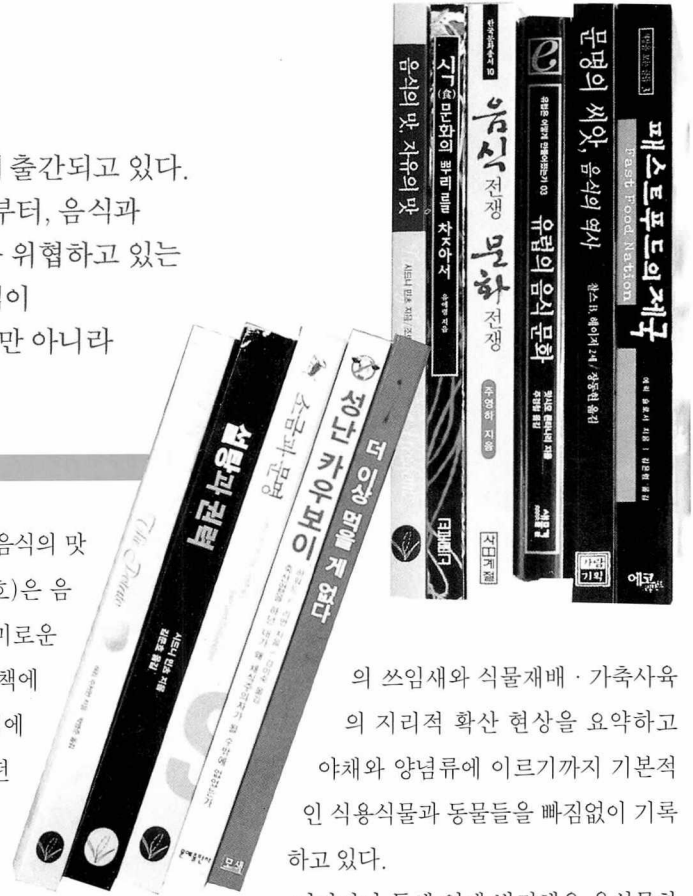
식물학자 찰스 B. 헤이저 2세의 《문명의 씨앗 음식의 역사》(장동현, 가람기획)는 인류의 식량원으로서 식물과 동물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길들여졌는지 살핀 식량의 역사다. 지은이는 고고학에서 민속학, 식물학에 이르는 폭넓은 주제들을 1백여장의 사진들을 곁들여 설명한다. 또 선사시대 이래로 발전해온 식량

의 쓰임새와 식물재배·가축사육의 지리적 확산 현상을 요약하고 야채와 양념류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식용식물과 동물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나라마다 특색 있게 발전해온 음식문화는 고유의 민족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식문화의 뿌리를 찾아서》(유애령, 교보문고)는 우리의 설화, 세시풍속에 깃들인 식문화의 뿌리를 탐색하고 있다. 지은이는 우리 음식문화의 대표적인 김치와 장 문화를 소개하고, 단군신화의 마늘과 쑥, 신라건국신화의 닭 등 설화와 신화 속에 나오는 음식문화를 담담하게 풀어간다. 지은이는 또 우리 음식문화 가운데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개고기에 대해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서 쓸모 없어진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가공식품의 해악 드러낸 책들

간편함과 독특한 맛으로 사랑받아온 패스트푸드는 이제 먹을거리의 차원을 넘어 생명안전과 지구의 환경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출간돼 화제를 일으켰던 에릭 슬로서의 《패스트푸드의 제



국(김은령, 에코리브르)은 패스트푸드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기자인 에릭 솔로서는 2년여에 걸친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토대로 패스트푸드가 성장하게 된 배경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현실, 패스트푸드 산업의 성공 비밀 등을 꼼꼼히 취재해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특히 지은이는 패스트푸드의 어두운 이면을 고발하면서 돈과 권력을 소유한 대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소비자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우리는 패스트푸드 제국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은이의 주장은 새겨볼 만하다.

패스트푸드로 대변되는 가공식품의 해악에 대한 고발은 한스 울리히 그림의 《더 이상 먹을 게 없다》(오은경, 모색)로도 이어진다. 이 책은 ‘문명사회의 질병이 음식에서 비롯됐다’는 충격적인 리포트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편집인인 지은이는 현대 사회의 식탁이 처한 위험과 이를 둘러싼 식품업계의 이해관계를 예리하게 추적하고 있다. 지은이는 콜라를 마신 사람이 뼈성분의 손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없고, 마가린을 먹은 사람도 치아 부식을 전혀 감지할 수 없듯 “현대에서 식품으로 인한 건강의 손상은 과거처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라며 가공식품의 해악을 강도 높게 경고한다.

축산업자였다가 채식주의자가 된 하워드 리먼은 《성년 카우보이》(김이숙, 문예출판사)를 펴내 미국산 육류는 화학약품 덩어리라고 고발한다. 지은이는 육류업계가 내세우는 육식의 필요성에 대해 반발하면서 육식이 암, 심장병, 비만 등의 근본원인이라는 사실을 주목조목 예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전지구적으로 행해지는 축산 산업이 지구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구의 사막화를 가속화한다고 우려한다.

급속한 경제활성화에 따른 생활의 변화는 식습관의 변화를 추동한다. 일본 《교토통신》의 햄미 요 외신부처장이 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얼굴로 먹고 있을까》

(최성현, 삼신각)는 음식으로 20세기 말 문명사회의 명암을 조명한 음식기행 보고서다. 이 책은 전세계 30여곳의 식습관을 정치·경제·사회 상황과 연관시켜 소개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패스트푸드의 급속한 전파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전통음식의 갈등도 유발한다. 문화인류학자 주영하의 《음식전쟁 문화전쟁》(사계절)은 음식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의미 분석으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인지 파헤친다. 지은이는 현장답사와 사료를 통해 음식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또 음식을 학문의 영역으로 당당하게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시적 관점에서 음식문화 조명한 책들도 줄이어

음식문화의 실체를 미시적 관점에서 들여다본 책들도 줄을 잇고 있다. 화학자이자 철학자인 피에르 라즐로의 《소금의 문화사》(김병욱, 가람기획)는 소금 속에 녹아 있는 인류의 정치·경제·문화·정신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염전 일꾼들의 고된 노동부터 염세(鹽稅), 정치권력과 소금과의 불가분의 관계, 소금에서 싹트온 자본주의, 나아가 분광학 발명에 이르기까지 소금에 관련한 여러 학문분야를 총망라했다. “요리에 소금을 치는 행위가 곧 세계사를 요약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지은이는 놀라울 만큼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담은 이 책을 통해 인류의 문화사에 녹아 있는 소금의 결정들을 추출해낸다.

새뮤얼 애드세드의 《소금과 문명》(박영준, 지호)은 단순한 조미료에서 산업의 주역으로 변모하며 인류의 문명 속에 용해돼온 소금의 역사를 조명했다. 이 책이 기존의 책들과 구별되는 점은 소금의 상품가치에 주목했다는 데 있다. 지은이는 방대한 소금의 역사를 6단계로 나눠 시대별로 정리하고, 생산·분배·소비의 세 측면에서 소금과 문명의 관계를 꼼꼼하게 파헤친다.

《설탕과 권력》(시드니 민츠, 지호)은 사탕수수를 소재로 세계사의 권력이동, 생활사의 변천을 다뤘다. 지은이는 이른바 문명인이 맞고 있는 과도한 단맛은 우리 몸의 요구에 따

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혹은 경제적 권력의 상징을 전유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설탕은 유럽에 처음 선보일 당시 꿀보다 귀한 약품이었다. 이후로도 줄곧 왕과 귀족들의 특별한 취향과 권위를 나타내는 사치품으로 자리해왔다. 그런 설탕이 어떻게 서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됐을까. 이 책은 귀족들의 사치품이었던 설탕이 노동자들의 애호품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좇으면서 근대화와 산업화의 거대한 메커니즘에 투영된 현대인의 삶을 읽는다. 지은이에 따르면 설탕은 노동자들에게 “술과는 달리 노동생산성을 해치지 않고 칼로리를 공급하는 ‘눈물겨운 상품’이었고, 권력자들에게 “프롤레타리아와 노동생산성을 매개하는 매우 고마운 존재”였다.

래리 주커먼의 《악마가 준 선물 감자 이야기》(박영준, 지호)는 감자에 얽힌 4백년의 역사를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미국의 역사적 사례를 들면서 풀어놓는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감자가 처음 식용으로 정착될 때는 모양이 추악해 ‘악마의 식물’이라고 배척받았다. 지은이는 감자가 유럽의 인구증가, 해외 이민, 산업혁명, 도시 노동계급의 증가 및 생활형태의 변화 등 인간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쳐왔다고 말한다. —박옥순 기자

다음은 한스 울리히 그림이 《더 이상 먹을 게 없다》에서 병주고 약주는 모순된 기업전략의 이면을 날카롭게 비판한 대목이다.

“헥스트, 바스프, 몬산토는 그들의 모든 기업전략을 ‘생물공학’ 방향으로 전환했고 네슬레, 유니레버, P&G, 다노네는 인류를 위한 새로운 건강식품을 신바람 나게 개발하고 있다. 이는 병주고 약주는 아주 교묘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콘칩, 초콜릿, 5분-조리 인스턴트 식품, 코카콜라를 너무 많이 먹어 똥통해지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그 식품들을 생산했던 회사에서 다시 정말 효과가 있다고 자신하는 건강회복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곧 식품 대기업의 슬로건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는 그 이면을 뒤집으면 ‘모든 사람의 중독을 위하여’가 된다.”